

[넷플릭스] 2022 년 이후 최대 규모인 1,000 명 감원 - 매출 성장률 네 분기 연속 둔화에 대한 비용 대응



26.10.21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핵심 요약

- 인력 6% (1,000 명) 감축·리더십 개편, 2022 년 이후 최대 규모
- 월 신규가입자 추정 25%↓ (120 만명), 워너브러즈 딜 차질
- 10/20 실적 발표, LSEG 는 매출 YoY 12% 성장 추정

넷플릭스가 1,000 명, 전체 인력의 6%를 감원한다. 로이터가 10 월 14 일 내부 메모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으로, 2022 년 이후 최대 규모 감축이다. 여기에 리더십 개편까지 겹쳤다. 로이터 칼럼니스트는 이를 두고 월간 신규 가입자가 최근 1 년간 추정 25% 줄어 120 만명 수준까지 내려왔고, 워너브러즈와의 거래도 차질을 겪었다고 짚으며 넷플릭스가 과거 자신이 밀어낸 케이블 TV 와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. 넷플릭스는 10 월 20 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었고, LSEG 추정치는 매출이 전년 대비 12% 성장할 것으로 봤다. 실제 발표 수치는 이 입력에 담겨 있지 않다.

이번 인력감축과 리더십 개편은 우리가 직전 분기 분석에서 지목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. 매출 성장률이 네 분기 연속 둔화하고 (17.6%→16.2%→13.4%→11.7% 가이드) Q3 가이드스가 시장 추정치를 밑돌면서 셀사이드 목표주가도 상향 없이 하향만 이어진 국면이었다. 비용단에서 선제적으로 조직을 가볍게 만드는 조치는 영업마진 33%대, 연간 FCF 125 억달러 가이드를 지키려는 방어적 포석으로 읽을 여지가 있다.

다만 칼럼니스트의 케이블 TV 비유는 저자 개인 견해이고, 넷플릭스는 여전히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30%대 영업마진을 유지하는 기업이라는 점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. 가입자 추정치 역시 외부 집계라 공식 공시 수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. 다만 가입자 신규 유입 둔화가 실제 추세라면, 광고·가격인상 중심으로 성장축을 옮기겠다는 회사 쪽 설명의 신뢰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.

인력감축 자체는 비용 효율화 신호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, 가입자 둔화와 워너브러즈 딜 차질이 같은 시점에 맞물리며 주가에는 단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. 10 월 20 일 실적에서 가입자·광고 매출 세부치가 얼마나 공개되는지, 그리고 워너브러즈 관련 설명이 추가로 나오는지 다음 판단의 핵심 변수다.



재무 요약 (I/B/E/S 컨센서스)

항목	FY Dec-24	FY Dec-25	FY Dec-26 (E)	FY Dec-27 (E)	FY Dec-28 (E)
매출 (Revenue)	39.00	45.18	51.23	56.97	62.70
↘ 증가율	15.65%	15.85%	13.38%	11.20%	10.07%
매출총이익	17.96	21.91	26.00	29.48	33.22
↘ 마진	46.06%	48.49%	50.75%	51.74%	52.97%
EBITDA	10.75	14.03	17.08	19.93	22.95
↘ 마진	27.55%	31.05%	33.35%	34.99%	36.60%
영업이익 (EBIT)	10.42	13.33	16.16	19.06	22.09
↘ 마진	26.71%	29.49%	31.55%	33.47%	35.23%
순이익	8.71	10.98	15.27	15.77	18.31
↘ 마진	22.34%	24.30%	29.80%	27.69%	29.20%
EPS	1.98	2.53	3.58	3.81	4.55
↘ 증가율	64.84%	27.58%	41.50%	6.30%	19.67%
잉여현금흐름 (FCF)	6.92	9.46	12.75	14.15	16.77
P/E	44.9x	37.1x	19.5x	18.4x	15.3x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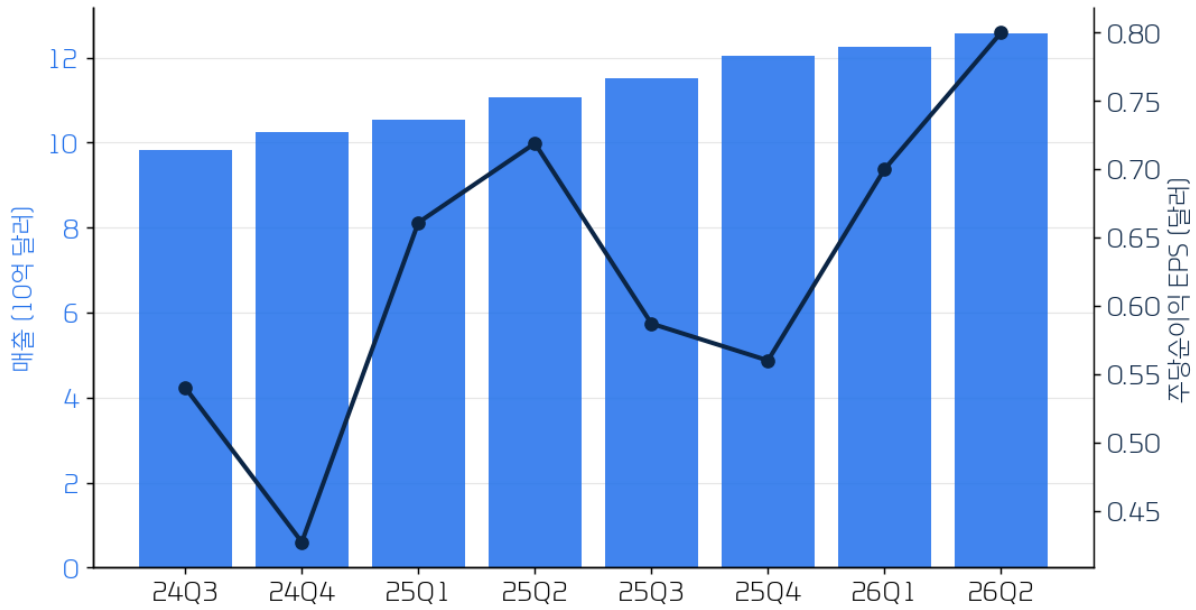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YoY, 단위는 십억 USD

참고 차트

NFLX 주가·12개월 선행 EPS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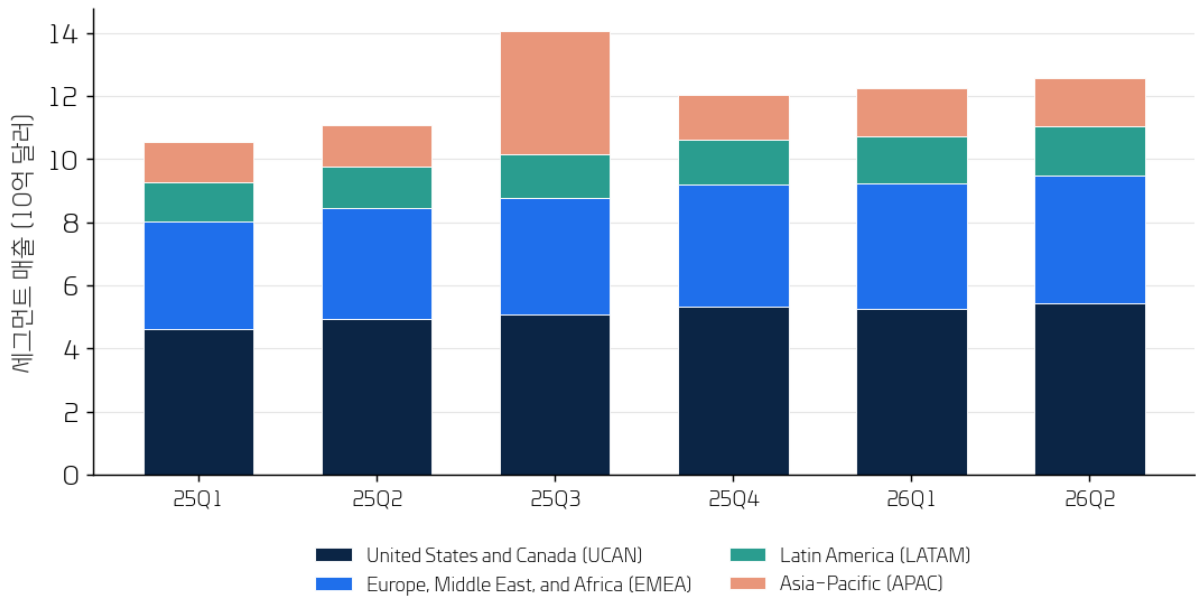


NFLX 분기 매출·주당순이익(EPS) 과거실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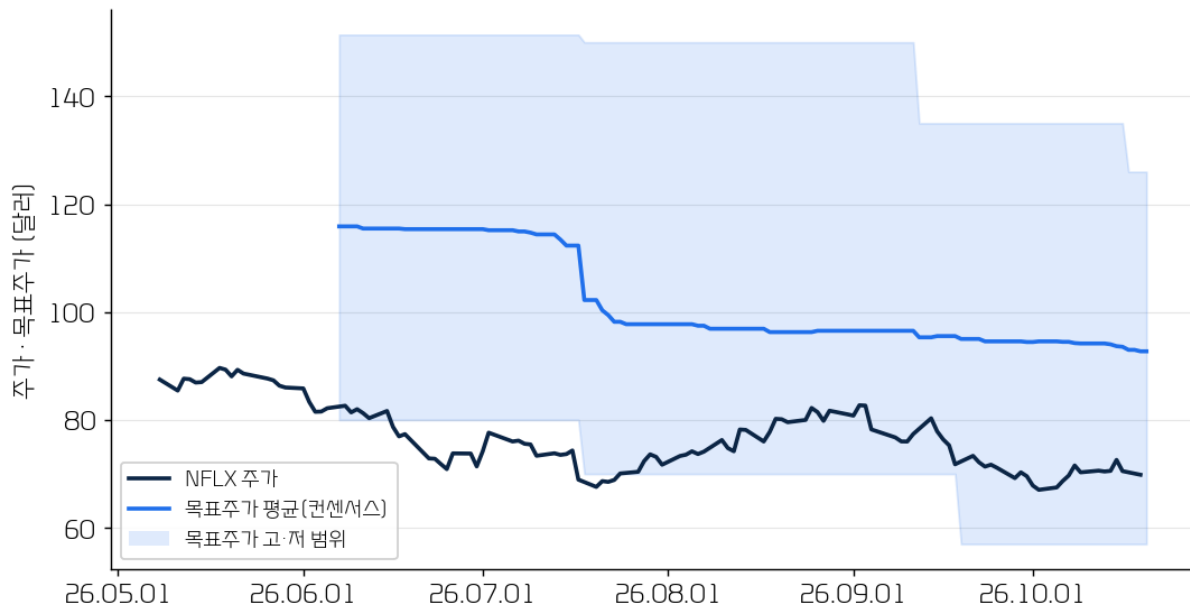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NFLX 세그먼트 매출 구성(사업부/지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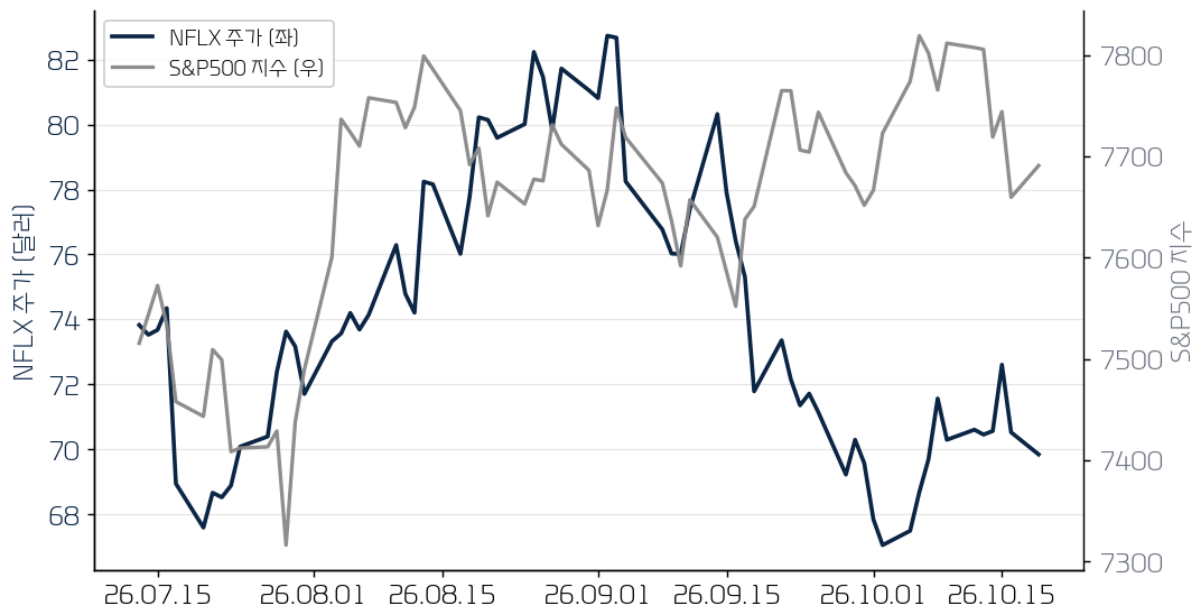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NFLX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NFLX 주가 vs S&P500 (최근 90 일)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